

보도일시 | 2025년 4월 29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새미골 문화마당

초등학생 대상 「ESG한 One Day」 참여자 모집

-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 ESG 원데이클래스
- 자라나는 새싹들의 ESG 감수성 키우기
- 폐플라스틱이 예술로, 배움으로!

울산 남구 새미골 문화마당(고래문화재단 운영, 이사장 서동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5문화예술아카데미 특별 원데이클래스 「ESG한 One Day」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생포에 위치한 새미골 문화마당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SG한 One Day」는 청소년에게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실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날 강연은 김민석 원더플라스틱 대표가 맡아 ‘플라스틱 업사이클’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어지는 체험 시간에는 ▲폐플라스틱 사출기 장비 체험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고래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 활동이 마련돼 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10명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은 4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화예술창작촌 관계자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하며 환경 감수성과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새미골 문화마당(☎052-276-9672)으로 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류현지 주임(☎ 052-276-96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7.
